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1, Vol. 27, No. 4, 505～528.
http://dx.doi.org/10.20406/kjcs.2021.11.27.4.505

노년기 사회적 지지제공과 지지받기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삶의 의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현 서[1)] 정 영 숙[†]

본 연구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노년기에 가족이나 친구/이웃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과 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삶의 의미를 매개로 노인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산 및 경남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310명을 대상으로 가족 또는 비 가족과의 사회적 지지제공 및 지지받기 정도, 삶의 의미, 자기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제공은 삶의 의미를 매개로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의미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적 지지받기는 삶의 의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가족과 비 가족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제공이 삶의 의미를 통해 노년기 자기가치감을 증진한다는 결과는 인생 쇠퇴 시기인 노년기 행복의 원천으로서 친밀한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적 지지제공, 사회적 지지받기, 삶의 의미, 자기존중감, 노년기

---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 교신저자 : 정영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E-mail: yschong@pusan.ac.kr

www.kci.go.kr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주고받는 다양한 자원이다(Cohen, Underwood, & Gottlieb, 2000).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질적 지원을 받거나, 정서적 위로를 받는 등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는 질환 감소와 면역 기능 향상과 관련 있으며(Heinze, Kruger, Reischl, Cupal, & Zimmerman, 2015; Lutgendorf et al., 2005; Uchino, 2006; Uchino, Carlisle, Birminngham, & Vaughn, 2011), 노인의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et al., 2014; Schwarzbach, Luppa, Forstmeier, König, & Riedel Heller, 2014; Wolff & Agree, 2004).

그런데 타인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에 비해 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민기채, 이정화, 2008; Piferi & Lawler, 2006; Thomas, 2010). 대만에서 이루어진 종단자료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노인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Liao et al., 2015). 이 연구에서 노인들은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물질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친밀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망률 감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ao et al., 2015).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를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보다 자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더 많다고 보고하는 노인의 경우 자신을 의존적으로 인식하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rown, Nesse, Vinokur, & Smith, 2003; Utne, Hatfield, Traupmann, & Greenberger, 1984; Lowenstein, Katz, & Gur Yaish, 2007).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의 교류는 적응적인 노년기를 맞이하는데 도움이 된다(Chen & Feeley, 2014; Thomas, 2010). 노인에게 가족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노인의 자기존중감이나 정서적 만족감의 주요 원천이 되며(Antonucci & Jackson, 1990),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타인과의 사회적 자원 교류는 노년기 적응과 행복에 기여한다(백지은, 2010; 전혜정, 2004; Brown, et al., 2003; Chen, et al., 2014).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한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물질적·정서적 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Joo, Chai, Jun, & Almeida, 2020). 노인들 역시 사회적 지지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자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다(Carstensen & Fried, 2012). 선행연구들은 인생의 쇠퇴기에 있는 노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Jensen et al., 2014; Molton & Jensen, 2010), 친밀한 타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노인이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었음에 주목하여, 사회적 지지받기와 아울러 사회적 지지제공이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기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www.kci.go.kr

사회적 지지제공, 지지받기와 노년기 삶의 의미

발달적 관점에서 노년기는 일에서 은퇴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경제력이 약화되고, 배우자나 친구와의 사별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하며,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이 약화되는 상실과 쇠퇴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긍정심리학의 흐름과 함께 노년기의 행복과 긍정적 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김동배, 2008; 이수림, 조성호, 2007; 정영숙, 조설애, 2013; 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2012; 정영숙, 최진희, 2016), 삶의 의미에 관한 관심도 부각되고 있다(김경미 등, 2011; Baumeister, 1991; Selligman, 2002).

Frankl(1959)로부터 시작된 삶의 의미에 대한 관심은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확장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삶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만,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는 삶의 의미에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인식하는 측면(의미의 존재)과 삶이 의미 있도록 노력하는 측면(의미의 추구)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삶의 의미(meaning in life)가 지난 삶에 대해 재평가하고 현재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부여하며,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Baumeister, 1991; Baumeister & Vohs, 2002; Emmons, 2003), 노년기의 삶의 의미 발견은 노인의 긍정적 적응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경미 등, 2011; Erikson, 1982; Erikson & Erikson, 1998; Krause, 2013; McMahan & Estes, 2011; Ryff, 1982; Steger, Oishi, & Kashdan, 2009; Van Orden, Bamonti, King, & Duberstein, 2012). 김경미 등(2011)은 노년기 은퇴나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위축, 자녀의 독립과 배우자나 친구 사별에 따른 인간관계의 축소, 그리고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건강의 약화 등 부정적 변화 발생을 지적하면서, 노년기의 상실에 대한 적응적 기제로 삶의 의미 부여의 중요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삶의 의미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의 연구가 가능하다. 한 방향은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의 선행 요인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 방향은 삶의 의미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제공과 지지받기를 설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크게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이를 세분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필요한 물질이나 경제적 도움을 의미하는 물질적 지원, 필요한 정보나 충고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원, 공감이나 사랑, 위로와 지지를 보내는 정서적 지원, 그리고 격려나 칭찬을 통한 자기존중감 지원이 그것이다.

사회적 지지제공과 지지받기는 삶의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중요한 타인에게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행위의 의미를 비교함으로써 그 관계성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의 유능감이나 자기가치,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Baumeister (1991)에 따르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자신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삶의 의미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게 물질이나 격려나 위로의 심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의 의미감, 목적의식,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Taylor & Turner, 2001). 다른 사람에게 도

www.kci.go.kr

움을 주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타인과의 연결감을 충족함으로써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었고, 2주 뒤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여 주었다(Martela, Rvan, & Steger, 2018).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삶의 의미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영숙 등, 2013, Sherman, Michel, Rybak, Randall, & Davidson, 2011). 또한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우울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은, 2010; Kessle, Mcleod, & Wethington, 1985). 이 결과들은 친밀한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제공자에게 유능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삶의 의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은 개인의 정체성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Stryker, 2007; Stryker & Serpe, 1982). 이 이론에 따르면, 노인이 성인자녀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면 기쁨이나 자긍심 등 긍정정서가 증가하여 노인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Siebert, Mutran, & Reitzes, 1999; Thomas, 2010). 즉 노인이 가진 자원을 친밀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동이 노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줌으로써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자.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은 노인을 사회적 지지의 수혜자로 보고 사회적 지지 수혜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삶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과 삶에 대한 회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물질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은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Dunn & O'Brien, 2009).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노인일수록 신체 건강과 면역 기능이 향상되며(Heinze et al., 2015; Lutgendorf et al., 2005; Mazzella et al., 2010; Uchino, 2006; Uchino et al., 2011), 노년기 신체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et al., 2014; Schwarzbach et al., 2014; Wolff et al., 2004). 또한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보고할수록 대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의미가 높았고(남태현, 이희경, 2016; Lambert et al., 2013),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일수록 삶의 의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자, 김계하, 2010; 이시은, 김분한, 2016).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개인에게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자료에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자신의 삶이 의미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rause, 2007).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의 부정적 효과는 정체성 이론과 형평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Stryker, 2007; Stryker et al., 1982), 노인이 성인자녀로부터 필요 이상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게 되면 우울감, 실패감 등 부정정서가 증가하게 되어 부모로서의 정체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형평이론에 따르면(Adams, 1963), 과도하게 사회적 지지를 받는 개인은 심적 부담과 죄책감과 같은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의존성이 증가할 수

www.kci.go.kr

있다는 것이다(Utne et al., 1984). 과도한 사회적 지원은 노인의 자기비하감과 연관되며(Lowenstein et al., 2007), 스트레스 증가 및 우울과 관련 있으며(백지은, 2010; Newsom & Schulz, 1996; Thompson, Hellerm & Rody, 1994), 낮은 삶의 만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ang, Krause, & Bennett, 2001; Shrout, Herman, & Bolger, 2006).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부담을 느낄수록 노인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결과 역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의 역효과를 시사해준다(Van Orden et al., 2012).

사회적 지지제공 및 지지받기와 자기존중감

Baumeister(1991)에 따르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통해 삶에 대한 목적이나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얻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음을 느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채선화, 김진숙, 2020; Debats, Drost, & Hansen, 1995). 자기존중감(self-esteem)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Cohen & Will, 1985; Liang et al., 2001).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을 비교한 연구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자기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기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과 제공하는 것을 구분하여 자기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자기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기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제공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arner, Schüz, Wurm, Ziegelmann, & Tesch-Römer, 2010).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보다 자신이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의존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owenstein et al., 2007). 65세 이상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종단자료에서도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노인은 높은 자기존중감을 보였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Krause, 2016). 이는 노인들도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기존중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줌으로써(Krause & Shaw, 2000), 노년기 사회적 지지제공은 노인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 대상으로서 가족과 비 가족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의미 원천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사회적 관계, 개인의 발전, 직업 장면에서의 성취 및 성공, 종교 활동 등 다양한 자원들을 통해 발견 할 수 있다(O'Connor & Chamberlain, 1996, Westerhof, Bohlmeijer, & Valenkamp, 2004). 그런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원천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게서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Lambert et al. 2010; Lambert et al., 2013).

www.kci.go.kr

인간관계 중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는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회적 관계이다. 특히 한국 노인의 경우 가족은 노인의 행복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2011; 유희정, 2011; 임은기, 정태연, 2009; 정여진, 안정신, 2010). 그러나 점점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친구나 이웃은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된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 인간관계를 다룰 때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은 다양하고 연령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지만, 노인에게는 대인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성취, 자기성장은 중·노년 보다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나이 들수록 성취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지며(남기민, 이정은, 2012; 백지은, 2010; 이현서, 정영숙, 2018; 전혜정, 2004; Antonucci et al, 1990; Carstensen, 1998; Chen et al, 2014), 삶의 의미를 주는 주요 원천이 된다(정영숙 등, 2013; 정영숙 등, 2012).

노년기 삶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Carstensen (1998)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생에서 남겨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노인들은 정서적 만족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가족처럼 친밀한 사람들이나 부담이 없는 편안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서적 안녕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강조하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은 노인들에게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이웃과의 사회적 자원의 교류가 노인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Cohen et al., 2000; Joo et al., 2020), 그리고 한국 노인에게 가족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대상을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는 '가족'과 친구/이웃을 포함하는 '비 가족'으로 나눠 사회적 지지제공과 지지받기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 대상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사회적 지지제공과 지지받기에서 가족과 비 가족의 영향이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한국 노인에게 가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강유진, 2011; 권미애, 김태현, 2008; 정영숙 등. 2012; 정태연, 2008). 그런데 최근 수행된 삶의 의미에 관한 메타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주체가 가족이냐 친구이냐에 관계없이 모두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채선화 등, 2020). 이는 사회적 지지를 누구에게서 받는 것보다 사회적 지지 자체가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노인에게 가족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고려해 보면,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이 아닌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효과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행복과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점,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점, 그리고 인생의 쇠퇴기의 노인도 타인으로부터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www.kci.go.kr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노인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 가족이외에 친구나 이웃도 포함시킬 필요를 지적하였다. 이런 필요성을 토대로, 노인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비 가족)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과 노인이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의미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자기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매개모델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이 노년기 삶의 의미존재를 매개로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교류효과가 가족과 비 가족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제공과 사회적 지지 받기가 삶의 의미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는 자기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비 가족(친구와 이웃)에 대한 사회적 지지제공과 사회적 지지받기는 삶의 의미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삶의 의미는 자기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방 법

연구대상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성인 남녀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Levinson(1986)의 구분에 따라 자녀 출가, 은퇴 등 노년기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60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집기간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04)

변인	구분	명(%)
성별	남성	152(50.0)
	여성	152(50.0)
연령	만59-74세	191(62.8)
	만75 이상	113(37.2)
교육수준	무학	8(2.6)
	초졸	51(16.8)
	중졸	68(22.4)
	고졸	123(40.5)
	대졸	54(17.8)
결혼유무	미혼	11(3.6)
	기혼	258(84.9)
	별거/이혼	7(2.3)
	기타	28(9.2)
세대유형	혼자	65(21.4)
	배우자	155(51.0)
	자녀	20(6.6)
	배우자자녀	57(18.8)
	기타	7(2.3)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10(3.3)
	나쁘다	39(12.8)
	보통이다	145(47.7)
	좋다	90(29.6)
	매우 좋다	20(6.6)
지각된 경제상태	아주 안 좋다	23(7.6)
	조금 안 좋다	54(17.8)
	비슷하다	140(46.1)
	조금 더 좋다	70(23.0)
	아주 좋다	17(5.6)
전체		304(100.0)

www.kci.go.kr

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였고, 설문지는 노인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자 중 설문조사에 동의한 노인에게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 설문의 목적과 소요 시간을 설명하였고, 설문지 작성은 용지를 받은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졌다. 이 중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면접자가 구두로 질문하고 설문 대상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시간은 15~40여분 정도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최종 30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1.91세(SD= 7.21)였고, 남성과 여성 각각 152명(50%)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123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유무는 기혼이 258명(84.9%)으로 가장 많았다. 세대유형은 155명(51.0%)이 '배우자'와 함께 살았으며, '혼자'가 65명(21.4%), '배우자 및 자녀'가 57명(18.8%), '자녀'가 20명(6.6%), '기타'가 7명(2.3%)이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145명(47.7%")이었고 '좋다'가 90명(29.6%), '나쁘다'가 39명(12.8%), '매우 좋다'가 20명(6.6%), '매우 나쁘다'가 10명(3.3%)이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상태는 '비슷하다'가 1140명(46.1%), '조금 더 좋다'가 70명(23.0%), '조금 안 좋다'가 54명(17.8%), '아주 안 좋다'가 23명(7.6%), '아주 좋다'가 17명(5.6%)이었다.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제공 및 지지받기

노인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하정혜와 김지현(2016)이 재구성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재는 이 척도에는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서적 지지 3문항, 정보적 지지 3문항, 물질적 지지 3문항, 평가적 지지 3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사회적 지지(12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가족 또는 비 가족으로부터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사회적 지지 받기) 그리고 응답자가 가족 또는 비 가족에게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사회적 지지 제공)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받기 측정을 위해 응답자는 네 가지 사회적 지지 유형에 해당되는 12개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에 평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받기 정도를 재는 문항의 예로는, "(배우자 및 자녀(가족)/ 친구와 이웃(비 가족)은 항상 내 일에 관심을 갖고 염려해준다', '(배우자 및 자녀/ 친구와 이웃은)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배우자 및 자녀/ 친구와 이웃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나 기꺼이 마련해준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사회적 지지받기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받기가 .95, 그리고 비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받기는 .94였다.

응답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받기 측정은 동일한 네 가지 사회적 지지 유형에서 응답자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에 평정하게 하였다. 배우자와 자녀(가족) 또는 친구와 이웃(비 가족)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항상 (배우자 및 자녀/ 친구와 이웃)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염려해준다', '나는 (배우자 및 자녀/ 친구와 이웃)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

www.kci.go.kr

다.', '나는 (배우자 및 자녀/ 친구와 이웃)이 돈이 필요할 때 언제나 기꺼이 마련해준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사회적 지지제공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제공이 .95, 비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제공이 ,95였다.

요약하면 사회저적 지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에는 가족(배우자와 자녀)으로부터 응답자가 받는 사회적 지지 정도, 비 가족(친구와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정도, 그리고 응답자가 가족(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 응답자가 비 가족(친구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의 네 가지 자료가 있다.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이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헌과 권선중(2005)이 타당화한 삶의 의미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삶이 의미있다고 인식하는 측면(의미존재)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의미추구)이 포함되어 있다.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에는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 측정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한 뒤 합산하였다. 이훈진 등(1995)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과 SPSS PROCESS 3.4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받기 및 지지제공과 자기존중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의 SPSS Macro model 4를 통해 분석한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부트스트랩의 표본 수는 5000개이고 매개효과 유의도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한 후,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ayes, 2017).

결 과

www.kci.go.kr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받기, 사회적 지지제공, 삶의 의미 및 자기존중감은 서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가족이나 친구/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들로 향한 사회적 지지제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81, p< .001). 즉,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 간의 관계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는데(가족: r= .82, p< .001, 비 가족: r= .80, p< .001),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정영숙 등, 2016; 하정희, 정유진, 2011). 그리고 사회적 지지받기와 사회적 지지제공은 모두 삶의 의미와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으며(각각 r= .44, p< .001; r= .44, p< .001), 자기존중감과도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각각 r= .40, p< .001; r= .44, p< .001). 전반적인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 대상이 가족인 경우와 비 가족인 경우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받기는 삶의 의미(r= .37, p< .001), 자기존중감(r= .37, p<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제공 또한 삶의 의미(r= .38, p< .001), 자기존중감(r= .43, p<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의 경우, 비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받기는 삶의 의미(r= .40, p< .001), 자기존중감(r= .31, p< .001)과, 지지제공은 삶의 의미(r= .39, p< .001), 자기존중감(r= .33, p<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가족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상관관계 양상이 확인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경우,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주요 변인과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은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받기(r= .11, p< .05), 삶의 의미(r= .24, p< .001), 자기존중감(r= .16, p<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적 지지받기(가족: r= .22, p< .001, 비 가족: r= .24, p< .001), 사회적 지지제공(가족: r= .16, p< .01, 비 가족: r= .16, p< .01), 삶의 의미(r= .27, p< .001), 자기존중감(r= .31, p<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주관적 경제상태 또한 사회적 지지받기(가족: r= .30, p< .001, 비 가족: r= .23, p< .001), 사회적 지지제공(가족: r= .24, p< .001, 비 가족: r= .15, p< .05), 삶의 의미(r= .24, p< .001), 자기존중감(r= .31, p<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의 독립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전체 상관분석과 달리 사회적 지지받기와 사회적 지지제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기는 응답자의 삶의 의미(r= .12, p< .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기존중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가족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삶의 의미(r= .13, p< .01), 자기존중감(r= .23, p< .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비 가족에서도 사회적 지지받기와 사회적 지지제공의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친구와 이웃의 비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삶의 의미(r= .16, p< .01)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친구와 이웃

www.kci.go.kr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N=304)

	1	2	3	4	5	5-1	5-2	6	6-1	6-2	7	8
1. **연령**												
2. **교육수준**	-.35***											
3. **주관적 건강상태**	-.16**	.22***										
4. **주관적 경제상태**	.04	.24***	.28***									
5. **사회적 지지받기**	.01	.12*	.26***	.31***								
5-1. 가족	.07	.11*	.22***	.30***	.87***							
5-2. 비 가족	-.04	.10	.24***	.23***	.87***	.51***						
6. **사회적 지지제공**	.08	.06	.19**	.22***	.81***	.67***	.73***					
6-1. 가족	.11	.06	.16**	.24***	.74***	.82***	.46***	.86***				
6-2. 비 가족	.02	.04	.16**	.15*	.65***	.33***	.80***	.86***	.47***			
7. **삶의 의미**	-.05	.24***	.27***	.24***	.44***	.37***	.40***	.44***	.38***	.39***		
8. **자기존중감**	-.10	.16**	.31***	.31***	.40***	.37***	.31***	.44***	.43***	.33***	.53***	
M	71.91	3.54	3.23	3.01	90.16	48.77	41.39	91.06	48.93	42.12	49.12	36.18
SD	7.21	1.05	.88	.97	16.31	9.52	9.23	15.49	8.99	9.07	11.49	5.97
Skewness	.47	-.42	-.18	-.16	-.68	-1.32	-.33	-.42	-1.16	-.34	-.52	.18
Kurtosis	-.41	-.60	.21	-.09	.52	2.37	-.05	.29	2.49	.42	.17	-.27

*p<.05, **p<.01, ***p<.001

www.kci.go.kr

표 3. 지지제공 및 지지받기와 변인들의 편상관분석

	가족		비 가족	
	지지제공	지지받기	지지제공	지지받기
삶의 의미	.13**	.12*	.13*	.16**
자기존중감	.23***	.04	.15*	.08

*p<.05, **p<.01, ***p<.001

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삶의 의미(r= .13, p< .05), 자기존중감(r= .15, p< .05)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받기 및 지지제공과 자기존중감 간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을 통제하였으며, 둘째,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받기 분석에서는 지지제공을 통제하였고, 사회적 지지제공 분석에서는 지지받기를 통제하였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제공 및 지지받기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가족(배우자와 자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받기와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삶의 의미에 차별적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자기존중감 증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삶의 의미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그림 1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매

그림 1.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존중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모형(좌측-지지제공, 우측-지지받기)

표 4.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경로						Bootstrap		95% 신뢰구간	
						B	*SE*	LLCI	ULCI
가족	사회적 지지제공	→	삶의 의미	→	자기존중감	.06	.03	.01	.11
	사회적 지지받기	→	삶의 의미	→	자기존중감	.02	.02	-.02	.07

www.kci.go.kr

개효과 분석결과,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삶의 의미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반면,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삶의 의미(B= .32, p< .001)로 가는 경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에서 서로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4), 사회적 지지받기에서 삶의 의미의 유의한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지지제공은 '지지제공 → 삶의 의미 →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매개경로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06, SE< .03).

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제공 및 지지받기와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비 가족(친구와 이웃)과의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그림 2와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2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가족에서의 삶의 의미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가족에서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친구와 이웃(비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받기는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친구와 이웃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삶의 의미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지만, 비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삶의 의미(B= .29, p< .01)로 가는 경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5 참조), 사회적 지지받기에서 삶의 의미의 유의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제공은 '지지제공 → 삶의 의미 →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매개경로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06, S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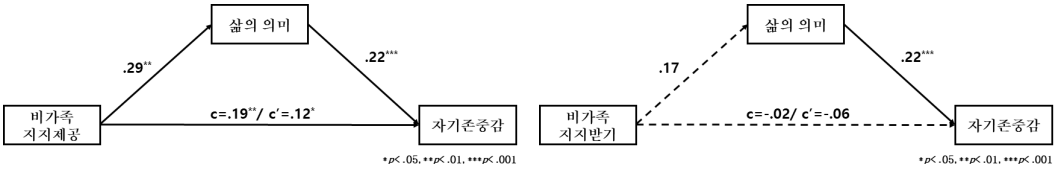

그림 2. 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존중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모형(좌측-지지제공, 우측-지지받기)

표 5.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경로						Bootstrap		95% 신뢰구간	
						B	SE	LLCI	ULCI
비 가족	사회적 지지제공	→	삶의 의미	→	자기존중감	.06	.03	.01	.12
	사회적 지지받기	→	삶의 의미	→	자기존중감	.04	.03	-.01	.10

www.kci.go.kr

논 의

노년기는 사회적 역할의 축소, 신체 기능의 저하, 경제적 능력 감소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인들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들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Carstensen, 1998; Stryker, 2007).

본 연구는 가족이나 친구/이웃과 같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임에 주목하고 노년기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이 노인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가족(배우자와 자녀)과 비 가족(친구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사회적 지지지공)와 가족과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사회적 지지받기)가 삶의 의미를 매개로 노인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를 비교한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사회적 지지제공과 사회적 지지받기는 삶의 의미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이 가족이나 친구/이웃처럼 중요한 타인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삶의 의미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삶의 의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한 바와 같이 삶의 의미는 노인의 자기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제공이 삶의 의미를 매개로 노인의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제공과 지지받기와 삶의 의미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보다 노인의 삶을 더 의미 있다고 인식하는데 효과적이며(Krause, 2007), 노년기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돕는 경험을 통해 노인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정영숙 등, 2013; 채선화 등, 2020).

본 연구에서 가족과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부담이 높은 노인의 경우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Van Orden et al., 2012), 지지를 받을수록 자기비하가 높아지고(Lowenstein et al., 2007),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였다는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Liang, et al., 2001; Shrout et al., 2006). 사회적 지지받기가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받기의 긍정적 효과를 당연시해온 연구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Jensen et al., 2014; Schwarzbach et al, 2014; Wolff et al., 2004), 향후 사회적 지지받기의 한계에 관한 보다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기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받기는 자기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사회적 지지제공은 자기존중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노년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치감 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www.kci.go.kr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Krause, 2016; Krause et al., 2000; Lowenstein et al., 2007; Warner et al., 2010),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기존중감을 고양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Liang et al., 2001)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은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의 차이가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가족과 비 가족 간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그 대상이 가족이든 비가족이든 노인이 그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자기존중감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삶의 의미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가족과 친구 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채선화 등, 2020). 그러나 한국 노인에게 가족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보면(강유진, 2011; 권미애 등, 2008; 정영숙 등, 2012; 정태연, 2008),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60대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에 따른 행복감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친구나 이웃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수준과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승민, 장재윤, 2018).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노인의 삶의 의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서수균, 백지영, 정영숙, 2013), 사회적 지원이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특성보다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때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민기채 등, 2008)는 선행 연구결과는 지지대상과의 상황적 · 정서적 특성이 지지제공의 긍정적인 효과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지제공 대상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관계의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에 따른 지지제공의 영향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감소한 노인에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가 노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가치감을 증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보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에게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노년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과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의 의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노인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받기의 증가는 죄책감, 의존성,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Warner et al., 2010). 반면, 노년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제공은 노인의 유능감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인식을 높이면서, 즐거움, 활력, 생동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Gleason, Iida, Bolger, & Shrout, 2003).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과정은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투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노인의 관심을 자신의 건강상태나 스

www.kci.go.kr

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의 필요로 전환되게 한다(Poulin, 2017). 타인의 욕구에 관심을 갖고 노년기 자신의 쇠퇴에 관한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를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노년기에 발생되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Bekkers & Wiepking, 2011; Qu, Konrath, & Poulin, 2020).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이 갖는 함의를 고려하여 노인의 자기존중감을 증진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원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삶의 의미 개념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변인들의 인과관계 규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의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관연구라 할 수 있다(공수자 등, 2010; 김경미 등 2011; 서수균 등 2012; 이시은 등, 2016; 정영숙 등 2012).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을 비교하여 삶의 의미와 자기존중감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지지제공과 지지받기를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 역도 가능하다. 즉, 삶의 의미를 느낄 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제안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주는 행위는 자율감, 유능감, 타인과의 연결감 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역의 논리가 가능하다면,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면 왜 타인에게 주는 행위나 받는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후속 연구로서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찾고, 삶의 의미가 갖는 기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제공/지지받기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거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한국 노인 집단 전체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이웃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와 지지받는 정도를 한 쪽의(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인 노인)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사회적 지지는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Cohen et al., 2000), 한 쪽의 응답보다는 상대방(노인의 가족, 노인의 친구 등)의 응답도 함께 수집될 때, 사회적 지지제공과 지지받기의 효과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삶의 의미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통해 지지받기와 지지제공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그 효과 크기가 미비하여 삶의 의미를 증진하는 요인으로 지지제공의 유용성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중·노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조절, 효능감을 통해 삶의 의미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준성, 정태연, 2012).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조절변인이나 매개변인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후속 연구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제공과 지지받기 정도를 측정하여 심리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제공에 대해 본인과 상대방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행위

www.kci.go.kr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 상대방이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Martela & Ryan, 2016; Martela et al., 2018). Martela 등(2016)의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 자체보다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제공자의 만족도가 기본심리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제공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지지제공이 노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승민, 장재윤 (2018). 노인들은 누구와 함께 할 때 더 행복할까? 노인의 일상적 대인 상호작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4), 531-559.

강유진 (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공수자, 김계하 (2010). 노인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2(4), 438-447.

권미애, 김태현 (2008).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자원봉사활동 집단과 경제활동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089-1111.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 211-231.

남기민, 이정은 (2012). 노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 85-112.

남태현, 이희경 (2016). 정서적 지지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관계성을 통한 진정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3), 45-64.

민기채, 이정화 (2008).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성차를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28(3), 515-533.

박준성, 정태연 (2012). 중·노년기의 봉사활동이 행복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과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32(2), 513-524.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지은 (2010).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 경험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25-445.

서수균, 백지영, 정영숙 (2012). 노인의 스트레스 및 삶의 의미성과 행복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17-30.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 Cooney, M. T. (2011).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35-54.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유희정 (2011).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에 관한 종단연구(1):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가

www.kci.go.kr

족복지학, 31, 87-111.

이수림, 조성호 (2007).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3), 65-87.

이시은, 김분한 (2016). 지역사회 거주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의미 관련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3), 221-230.

이현서, 정영숙 (2018). 성인초기와 중년후기의 균형적 시간관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행복증진활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615-636.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5(1), 277-290.

임은기, 정태연 (2009). 한국 노인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한국노년학, 29(3), 1141-1158.

전혜정 (2004). 미국노인의 사회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종단적 자료분석. 한국노년학, 24(1), 89-105.

정여진, 안정신 (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30(2), 535-550.

정영숙, 조설애 (2013). 삶의 의미 원천과 의미에 대한 노력이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행복에 미치는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507-531.

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2012). 한국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9-41.

정태연 (2008). 한국노년학에서 다룬 노인의 심리적 특성: 역사적 고찰과 미래의 과제. 한국노년학, 28(4), 815-829.

정영숙, 최진희 (2016).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수혜/제공과 노인의 행복감 및 우울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7(4), 235-264.

채선화, 김진숙 (2020). 삶의 의미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39-468.

하정혜, 김지현 (2016).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 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23-1046.

하정희, 정유진 (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제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수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27-449.

Adams, J. S. (1963).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5), 422-436.

Antonucci, T. C., & Jackson, J. S. (1990). The role of reciprocity in socail support. In B. R. Sarason, I. G. Sarason, & G. R. Pierce(Eds.). *Social support: An international view*(pp. 173-198). Oxford: John Wiley & Sons.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Guliford Press.

Baumeister, R. F., & Vohs, K. D. (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C. R. Snyder & S.J. Lopez (Eds.),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08-61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ekkers, R., & Wiepking, P. (2011).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f philanthropy: Eight mechanisms that drive charitable giving.

www.kci.go.k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5), 924-973.

Brown, R., Nesse, M., Vinokur, D., & Smith, M. (2003). Providing social support may be more beneficial than receiving it results from a prospective study of mortality. *Psychological Science, 14*(4), 320-327.

Carstensen, L. (1998). A life-span approach to social motivation. In J. Heckhausen & C. S. Dweck(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pp. 341-364).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stensen, L L., & Fried, L. (2012). The meaning of old age. In J. R. Beard, S. Biggs, D. E. Bloom, L. Fried, P. Hogan, A. Kalache, & S. J. Olshansky(Eds.). *Global population ageing: Peril or promise?*(pp. 15-17). Geneva: World Economic Forum.

Chen, Y., & Feeley, T. H. (2014). Social support, social strain, lonelin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An analysis of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2), 141-161.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Cohen, S., Underwood, L. G., & Gottlieb, B. H.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ebats, D. L., Drost, J., & Hansen, P. (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3), 359-375.

Dunn, M. G., & O'Brien, K. M. (2009). Psychological health and meaning i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coping in Latina/Latino immigra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1*(2), 204-227.

Emmons, R. A. (2003). Personal goals, life meaning, and virtue: Well springs of a positive life. In C. L. M. Keyes & J. Haidt(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pp. 105-1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Y: Norton.

Erikson, E. H., & Erikson, J. M. (1998).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New York: Norton & Company.

Frankl, V. E.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London: Hodder & Stoughton.

Gleason, M. E., Iida, M., Bolger, N., & Shrout, P. E. (2003). Daily supportive equity in close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8), 1036-1045.

Utne, M. K., Hatfield, E., Traupmann, J., & Greenberger, D. (1984). Equity,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323-33.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York: Guilford publications.

Heinze, J. E., Kruger, D. J., Reischl, T. M., Cupal, S., & Zimmerman, M. A. (2015).

www.kci.go.kr

Relationships among disease,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health: a lifespan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6*(3-4), 268-279.

Jensen, M. P., Smith, A. E., Bombardier, C. H., Yorkston, K. M., Miró, J., & Molton, I. R. (2014).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physical disability: age and diagnostic group effects.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7(2), 164-172.

Joo, S., Chai, H. W., Jun, H. J., & Almeida, D. M. (2020). Daily stressors facilitate giving and receiving of emotional support in adulthood. *Stress and Health, 36*(3), 330-337.

Kessler, R. C., McLeod, D., & Wethington, E. (1985). He cost of caring: A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I. Sarason & B.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 application*(pp. 491-506). Hagu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Krause, N. (2007).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Psychology and Aging, 22*(3), 456-469.

Krause, N. (2013). Meaning in life and healthy aging. In *The human quest for meaning* (pp. 455-478). Routledge.

Krause, N. (2016). Providing emotional support to others,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65*, 183-191.

Krause, N., & Shaw, B. A. (2000). Giving social support to ot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changes in self-esteem in late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 Social Sciences, 55*(6), 323-333.

Lambert, N. M., Stillman, T. F., Baumeister, R. F., Fincham, F. D., Hicks, J. A., & Graham, S. (2010). Family as a salient source of meaning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 367-376.

Lambert, N. M., Stillman, T. F., Hicks, J. A., Kamble, S., Baumeister, R. F., & Fincham, F. D. (2013). To belong is to matter: Sense of belonging enhances meaning in lif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11), 1418-1427.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

Liang, J., Krause, N. M., & Bennett, J. M. (2001). Social exchange and well-being: Is giving better than receiving?. *Psychology and Aging, 16*(3), 511-523.

Liao, C. C., Yeh, C. J., Lee, S. H., Liao, W. C., Liao, M. Y., & Lee, M. C. (2015). Providing instrumental social support is more beneficial to reduce mortality risk among the elderly with low educational level in Taiwan: A 12-year follow-up national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Nutrition, Health & Aging, 19*(4), 447-453.

Lowenstein, A., Katz, R., & Gur Yaish, N. (2007). Reciprocity in parent-child exchan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63*(4), 865-883.

Lutgendorf, S. K., Sood, A. K., Anderson, B., McGinn, S., Maiseri, H., Dao, M., ... & Lubaroff, D. M. (2005).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distress, and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in ovarian cancer.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3*(28), 7105-7113.

www.kci.go.kr

McMahan, E. A., & Estes, D. (2011). Age-related differences in lay conceptions of well-being and experienced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 1-23.

Martela, F., & Ryan, R. M. (2016). The benefits of benevole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beneficence, and the enhancement of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84*(6), 750-764.

Martela, F., Ryan, R. M., & Steger, M. F. (2018). Meaningfulness as satisfaction of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and beneficence: Comparing the four satisfactions and positive affect as predictors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5), 1261-1282.

Mazzella, F., Cacciatore, F., Galizia, G., Della-Morte, D., Rossetti, M., Abbruzzese, R., & Rengo, F. (2010). Social support and long-term mortality in the elderly: role of comorbidity.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1*(3), 323-328.

Molton, I. R., & Jensen, M. P. (2010). Aging and disability: biopsychosocial perspectives.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Clinics*, *21*(2), 253-265.

Newsom, J. T., & Schulz, R. (199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 between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1*(1), 34-44.

O'Connor, K., & Chamberlain, K. (1996). Dimensions of life meaning: A qualitative investigation at mid lif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7*(3), 461-477.

Piferi, R. L., & Lawler, K. A. (2006). Social support and ambulatory blood pressure: An examination of both receiving and giv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62*(2), 328-336.

Poulin, M. J. (2017). *To help or not to help: Goal commitment and the goodness of compassion.* In E. M. Seppälä, E. Simon-Thomas, S. L. Brown, M. C. Worline, C. D. Cameron, & J. R. Doty(Eds.). *Oxford library of psychology. The Oxford handbook of compassion science*(pp. 353-367). Oxford University Press.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Qu, H., Konrath, S., & Poulin, M. (2020). Which types of giving are associated with reduced mortality risk among older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4*, 1-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Ryff, C. D. (1982). Self-perceived personality change in adulthood and a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8-115.

Schwarzbach, M., Luppa, M., Forstmeier, S., König, H. H., & Riedel Heller, S. G. (2014). Social relations and depression in late life-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9*(1), 1-21.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515-527). NY: Oxford University Press.

Sherman, N. E., Michel, R., Rybak, C., Randall, G. K., & Davidson, J. (2011). Meaning in

www.kci.go.kr

life and volunteerism in older adults. *Adultspan Journal, 10*(2), 78-90.

Shrout, P. E., Herman, C. M., & Bolger, N. (2006). The costs and benefits of practical and emotional support on adjustment: A daily diary study of couples experiencing acute stress. *Personal Relationships, 13*(1), 115-134.

Siebert, D. C., Mutran, E. J., & Reitzes, D. C. (1999). Friendship and social support: The importance of role identity to aging adults. *Social Work*, *44*(6), 522-533.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

Steger, M. F., Oishi, S., & Kashdan, T. B.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43-52.

Stryker, S. (2007). Identity theory and personality theory: *Mutual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75*(6), 1083-1102.

Stryker, S., & Serpe, R. T. (1982). Commitment, identity salience, and role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example. In *Personality, roles, and social behavior*(pp. 199-218). Springer, New York, NY.

Taylor, J., & Turner, R. J.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mattering to others for depressive symptoms. *Journals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0-325.

Thomas, P. A. (2010). Is it better to give or to receive?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5*(3), 351-357.

Thompson, M. G., Heller, K., & Rody, C. A. (1994). Recruitment challenges in studing late-life depression: Do community samples adequately represent depresse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9*(1), 121-125.

Uchino, B. N. (2006). Social support and health: a review of physiological processes potentially underlying links to disease outcom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9*(4), 377-387.

Uchino, B. N., Carlisle, M., Birmingham, W., & Vaughn, A. A. (2011). Social support and the reactivity hypothesis: Conceptual issues in examining the efficacy of received support during acute psychological stress. *Biological Psychology*, *86*(2), 137-142.

Van Orden, K. A., Bamonti, P. M., King, D. A., & Duberstein, P. R. (2012). Does perceived burdensomeness erode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16*(7), 855-860.

Warner, L. M., Schüz, B., Wurm, S., Ziegelmann, J. P., & Tesch-Römer, C. (2010). Giving and taking-Differential effects of providing, receiving and anticipating emotion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adults with multiple illnesse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5), 660-670.

Westerhof, G. J., Bohlmeijer, E., & Valenkamp, M. W. (2004). In search of meaning: A

www.kci.go.kr

reminiscence program for older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30*(9), 751-766.

Wolff, J. L., & Agree, E. M. (2004). Depression among recipients of informal care: The effects of reciprocity, respect, and adequacy of suppor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9*(3), S173-S180.

논문 투고일 : 2021. 09. 13
1 차 심사일 : 2021. 09. 15
게재 확정일 : 2021. 11. 02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1, Vol. 27, No. 4, 505～528.

The Differential Effects of Giving and Receiving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in the Elderly: The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s of Meaning in Life

Hyeonseo Lee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giving and receiving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when relationships(family, friend/neighbor) are important. For this purpose, the mediation effects of meaning in lif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iving and receiving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ere analyzed. Self-reporting data of 310 adults aged over 60 living in Busan and Gyeongnam in South Korea were collected regarding giving and receiving social support, meaning of life and self-esteem. The mediation analysis showed that giving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with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meaning in life. Receiving social support,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of meaning in life. This pattern was similar regardless of both family and non-family relations. The result that giving social support enhances self-worth in the elderly through meaning in life suggests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raction with intimate others as a source of happiness in the elderly.

Key words : giving social support, receiving social support, meaning in life, self-esteem, elderly

www.kci.go.kr